

■ 실속 재테크

포인트 쌓이면 현금으로 통장에 쏘옥

사용금액 따라 매월 최대 1만원 돌려줘

자신의 패턴 맞게 상품 고르면 알뜰 혜택

여성들은 현금이나 다른 없다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알차게 쓴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신용카드는 '긁어도' 그 포인트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포인트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포인트 이용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카드 사용자를 겨냥한 '캐시백' 신용카드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 카드는 포인트가 쌓이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신용카드다.

동양 W-CMA캐시백 롯데카드는 카드 사용액에 따라 매월 최대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전월 사용실적이 150만원 이상이면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7천원, 50만원 이상이면 3천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동양종금증권 CMA(종합 자산관리계좌)를 결제 계좌로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V적금카드는 매월 카드 이용액의 0.3%를 고객이



수 있는 서비스로 나왔다. 삼성카드는 선불카드를 충전하는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0.5%를 돌려주는 '생활비 재테크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한카드의 '신한 S-MORE카드'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비슷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카드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S-MORE 포인트는 포인트 전용통장에 쌓인다. 이 포인트엔 연 1%의 이자까지 얹어준다.

단, 월 단위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캐시백 카드보다 연간 단위로 신용

카드 포인트를 정산해주는 상품의 포인트 적립비율이 더 높을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신용카드 포인트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카드 사용패턴에 맞춰 카드를 선택하면 알찬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모든 카드가 마찬가지지만 결제계좌를 어느 은행으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포인트나 현금액수가 달라진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예금 하나마나… 실질금리 1% 아래로

16개월만에 최저

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 금리가 잔액기준으로 4개월째 연 3%대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의 격차가 1%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은행 예금을 통해 얻는 실질 이자수입이 거의 제로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이 제공하는 순수 저축성예금에 대한 금리(기준평균)는 잔액기준으로 지난 1월에 연 3.91%로 집계돼 전월인 작년 12월의 3.85%에 비해 약간 올라갔으나 4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

다. 작년 10월에는 3.92%, 11월에는 3.87%였다.

지난 1월의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1년 전인 작년 1월의 5.60%보다는 1.6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는 잔액기준으로 지난해 9월까지 4~5%대를 유지했으나 10월부터 3%대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1%로 전월의 2.8%보다 0.3%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작년 4월(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계산해낸 결과다.



전중규 외환銀 부행장

여신본부 부행장 선임

보성 출신인 전중규(59) 외환은행 부행장이 여신본부 부행장(OCO·Chief Credit Officer)에 선임됐다. 외환은행은 전 부행장이 지난 2004년부터 여신관리본부장(상무)으로서 뛰어난 실력을 올린 공로를 인정해 CCO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과 국제대학교를 졸업한 전 부행장은 지난 1971년부터 외환은행에서 근무했다. 외환은행은 기존 CCO였던 장명기 수석부행장은 상임 이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현금 돌려주는 캐시백 신용카드

중기청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대상

양동시장 등 광주·전남 20곳 선정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20곳이 올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의 경우 '상인대학'에는 강진읍시장, 곡성 기자마을전통시장 등 8곳이 선정됐고, '시장투어 및 이벤트 지원'에는 구례5일장, 목포 동부시장, 여수 서시장주변시장 등 12곳이 지원을 받았다.

광주·전남에서는 20곳이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는 양동시장과 북구 임동 자동차거리 상점가가 교육지원사업인 '상

인대학'과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하는 '시장투어 및 이벤트' 사업 대상으로 뽑혔다.

전남의 경우 '상인대학'에는 강진읍시장, 곡성 기자마을전통시장 등 8곳이 선정됐고, '시장투어 및 이벤트 지원'에는 구례5일장, 목포 동부시장, 여수 서시장주변시장 등 12곳이 지원을 받았다.

을 지원사업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가량 확대됐으며, 신청시장이 789곳에 달해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밴쿠버 영웅들 '쏘울' 탄다

기아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 격려

기아차는 9일 강남구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금메달을 딴 모태범, 이승훈, 이상화 선수와 대표팀 맨형 이규혁 선수에게

쏘울을 전달했다.〈사진〉 기아차는 올림픽에서 활약한 성적을 기운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상화 선수는 "기아차의 지

속적인 후원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쏘울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차라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2004년부터 모태범, 이상화 등 18명의 국내 유망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를 비롯해 전 세계 30여 개국의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및 선수 200여 명을 후원해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좋은 보험기를 쓰십시오!

• 대수 일정입니다.

• 운전드립니다.

• 가족과 함께 합니다.

SINCE 1902
www.kt.com

국제보청기